

I=I, Idea, Invention

지금은 I 이론시대(7)

수없이 많은 답

대학입시의 논술고사에서조차 같은 대답이 많이 나와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한다. 부정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수험생 중 삼분의 일 이상이 같은 내용의 예를 들고 논지도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암기형 중심의 교육을 한 탓이 무척 클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한가지 정답을 구하려는 수학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이 사회적 조류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획일적 사고방식의 주입이 이처럼 우스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정답만을 알고 이에 집착하는 현상은 사고의 탄력성을 파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을 방해한다. 이런 상태에 방치된 인간은 결국 걸어다니는 전자 계산기와 같은 꼴이 될지도 모른다.

답은 수없이 많다. 만약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정답만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그 밖의 수많은 정답을 잃게 된다. 더 효율적인 해결책이 숨어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 기회를 사용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퍼는 원래 구두를 편하게 벗고 신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한

다. 신고 벗을 때마다 끈을 풀고 묶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일본 일초를 닮은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물건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지퍼 달린 구두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지퍼의 고안자는 자포자기 하기에 이르렀고 자신의 발명품을 내팽개친채 도망쳐 버렸다. 지퍼는 고안자에게조차 버림받고 그 대로 어둠속에 묻힐 위기에 처해졌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지퍼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순 없을까?’

그는 지퍼의 새로운 용도를 궁리한 끝에 드레스에 지퍼를 달아서 상품화 하게 되었다. 결과는 대성공. 지퍼 달린 드레스는 날개돋힌듯 팔려 나갔고, 그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행동양식은 아주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발명가로서 칭송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낙오자로 전락하고,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는 이 결과를 두고 세상이 공평치 못하다고 한탄 할지도 모른다. 정작 보상 받아야 할 이는 제외되고, 열도당도 않

은 이가 성공의 열매를 대신 받았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해결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사람은 스스로 함정엔 빠진 것이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발명자는 지퍼의 용도를 구두에만 한정지어, 새로운 방법의 모색에 인색했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그 수완이 놀라울 정도이다. 드레스에 지퍼를 달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 계속 지퍼의 새로운 용도를 찾기 위해 골몰한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지퍼에 대해 생각해온 사람처럼 계속 새로운 대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의 방법이 없거나,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차선책을 찾으려 하라. 때로는 이 차선책이 최선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가지 다양한 대담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대담에 만족하고 마는데,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보다 멋진 미래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새로운 방식에 접근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모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볼펜과 같은 단순한 물건도 그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양을 나타내듯, 모든 문제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일단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이에 따른 해결책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 문제의 정답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만족하지 말라.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미치는데로 다른 방법들을 구해보는 것이다.

매일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 그가 가진 음식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한정적이고 비탄력적인 것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에 대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고정적인 대담에 익숙한 사람은 항상 비슷한 해결책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도 한정된 것일 뿐이다. 창조력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강 약의 '맛'을 느낀 후, 끄집어 낸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라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항상 의외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항상 의외성이 잠복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때때로 숨겨진 보석처럼 빛을 발하곤 하는데, 이를 발견하려면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 의외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확실적인 정답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 오히려 개인의 상상력이 총동원된 두번째, 열번째 방법이 더욱 환영받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에 도전하여보자. 출발점은 바로 여기, 지금이다.

새로운 대답과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반대의 생각

엷힌 실타래처럼 너무나 복잡하여, 풀기 어려운 미로게임이 있다. 출발점부터 착실히 옮겨갔으나 자꾸 허튼 길로 들어서게 되어 마음이 답답하고 급해진다. 점심내기라도 해서 빨리 풀기 경쟁이라도 하고 있는 참이면,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이럴때 어떻게 할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미로의 종착점에서부터 길을 거꾸로 되집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제 길을 찾아낼 수 있다. 거꾸로 보는 시각이 무수한 함정 속에 묻혀있던 새로운 길을 드러내주는 덕분이다.

발명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사물을 뒤집어 보고 처음과 끝을 바꾸어 보고 정반대의 성격으로 개조하고... 바로 이러한 원리를 '역사고 방법'이라 한다.

현대사회에서 성공의 갈림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참신한 소재, 그것은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수표이다.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으려 하는 사람은 우선 기존의 편견과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부터 시도해야 한다. 겨울 옷을 입은 채로 여름 옷을 껴입을 수 없듯이, 낡은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 버릴 것인가? 단순하게 새로운 생각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능한 일일까? 굳게 결심을 하면 약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써 보도록 하자. 바로 앞서 말한 역사고의 방법이 그것이다.

역사고란 무엇인가?

말그대로 반대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미로의 종착점과 출발점을 뒤바꿔 보듯이 일상적인 질서를 뒤집어 보는 것이다. 그것은 평화로움의 파괴나, 정돈된 것을 흩어 버리는 수도 있지만,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 숨구멍을 틔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주라는 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살펴보자.

'알콜 함량이 높다.'

'값이 싸다.'

'숙취가 심하다.'

'쉽게 취한다.'

'대중적 분위기에 어울린다.'

이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소주는 싸고 독한 술이라는 일반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니, 알콜 함량이 낮아야하지 않을까?'

'양주처럼 가격을 높인다면...'

'숙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소주라면?'

이런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 가볍고 순한 소주라는 새로운 성격의 상품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소주와는 정반대의 성격이 부각된다.

또하나,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휴지

한 장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화장지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미용용으로 쓰이는 곁이 고운 티슈와 약간 거칠면서 경제적인 화장실 휴지. 연약한 피부에는 되도록이면 고급품을 쓰고, 불결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용도로는 다소 거친 것을 써도 무방하다는 고정 관념의 소산이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화장실용 휴지이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세균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곳이 화장실이다. 따라서 미세한 상처나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친 휴지는 화장실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다.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라도 곁이 고운 휴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화장실용 휴지라하여 거칠음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부드러운 화장실용 휴지.’

이것이 역사고방법으로 탄생된 상품이다.

이 두 작품은 실제로 상품화 되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역사고 방법이 대중의 심리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우편제도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우표’도 바로 이 역사고의 산물이다.

우편제도는 우표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후불제도였다. 즉 편지를 받는 사람이 현금으로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편 배달원과 수취인 사이에는 항상 언쟁이 끊이지 않았다.

“저는 이 편지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도로 가져 가세요.”

“아니,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안받으시면

어쩍니까?”

“아, 글썄 난 우편요금을 낼 돈이 없단니까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이 우편물 착불소동을 없앤 사람은 영국의 로랜드 힐이었다.

‘우편요금 제도를 거꾸로 하면 어떨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미리 우편요금을 지불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접수된 우편물을 거부하는 수취인은 없어질거야!’

그는 우편요금의 대안책으로 우표를 제의했고, 그것은 곧바로 시행되어 높은 실효를 거두었다.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우편제도의 불합리성을 완전히 해소해 버린 것이다.

역사고법은 그 끝이 날카로운 창처럼 뽀족하다. 언제라도 일반인들의 의표를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습관으로 고정되어 있어,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불편함이나, 등 뒤에 숨겨 놓았던 아쉬움들을 구매자의 뒷편에서 훑쳐봄으로써 그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다.

남이 모두 함께 보는 세상은 전혀 신선하지 않다. 뒤집어서, 누워서, 혹은 물구나무를 서고 세상을 보자. 발 위에서 흐르는 구름이 시인의 소재가 되듯, 사물의 후미에 감추어진 작은 비밀이 발명가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어릿광대의 방법

인간은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간혹 로빈슨 크루소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상황이 영원하리라는 가정을 붙이면 당장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사나운 자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 이젠, 인간의 피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아 당연스런 것으로 변한 것이다.

실제로 집단과 집단의식은 인간에게 많은 이로움을 준다. 생산과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이에 우리는 개성의 일정 부분을 댓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집단을 영위하고, 집단의식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효율적이라 믿는 이 집단체제에도 맹점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구성원의 사고방식이 획일화, 순응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양식을 관찰해보자.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그릇된 판단에 동요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아예 스스로의 판단은 하지 않은 채로 집단의 의향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대다수의 사람은 이 물음에 쉽게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사고방식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생각없이 살아가고 있다.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가 켜져 있어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게 된다. 모두가 움직이는데 혼자 멍하니 서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집단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더욱 관심을 쏟는 것이다.

만약 열 사람 중에 여덟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포기한다. 또한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생각은 옳게 마련이라는 착각에 얽매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맹목적으로 집단의 결정에 따르는 몰가치한 행동들이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독창성마저 억제당할 우려가 있다.

집단적 사고는 독창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빠져 나오기 힘든 깊은 함정과 같은 것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빠져들지 모르며, 또 자신이 집단적 사고에 빠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순응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방법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릿광대의 방법'이라 하는데, 중세 유럽에서 아침하는 간신들로부터 왕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썼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어릿광대는 논리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써 대중을 웃긴다. 그와 마찬가지로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을 펼치는 것이다. 때론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혹은 '이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우리는 상황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릿광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정과 가치를 여지없이 몽케버린다. 그에겐 때론 원숭이의 손톱이 귀부인의 반지보다 귀하며, 고매한 철학보다는 한 마디 농담이 더 가

치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규칙 또한 그에게는 아무런 제약도 가할 수 없다. 식탁 위를 걸어다니거나 꽃밭에 누워버리는 일 따위는 그의 일상같은 것이다.

창조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릿광대의 이런 무질서한 가치관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을 뒤엎고 틀을 깨트리며, 평범함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발명 창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어릿광대의 엉터리같은 우스개 소리는 때로 집단사고에 찌든 우리를 깨우며, 우리가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 남이 보여주는 것을 생각없이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는 가치는 없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화하여 어제는 가능하지 않던 일이 오늘엔 가능할 수도 있다.

어는 누구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릿광대의 우스운 말 한마디가 일년 혹은 이년 후에는 실제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세의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시늉을 하는 어릿광대의 몸짓에 폭소를 터트렸다. 그들은 인간이란 영원히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광대는 하늘은 날 수 있다는 어리석은 가정이 있었고, 그것은 마침내 실현되었다.

모두가 같은 생각만을 한다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형처럼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같은 단어를 중얼거릴 것이다.

세계는 어릿광대와 같은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독창적이며 생산적인 사고의 소유자들.

스스로가 이 어릿광대의 역할을 담당해 보자.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거부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창조력을 자극하는 엉뚱한 말들을 지껄여보자. 자신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창조력의 샘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왕연중 기> **발특9705**

안 발명도서 판매 **내**

도 서 명	가 격
지금은 발명시대	5,000
역시를 바꾼 세계적인 발명·발견	5,000
재미있는 발명여행	3,500
재미있는 발명학교	3,500
나도 발명왕이 될 수 있다	6,000
이제 I 이론도 만들때다 <I=1, Idea, Invention>	5,500
작은 아이디어로 크게 성공한 세계적인 발명가들	5,500
역사적 발명, 그 뒷이야기	4,000
엉뚱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1)~(4)	(1)5,000 (2)4,000 (3)4,000 (4)5,000
나도 발명가	3,000
두뇌강타·아이디어 창출	4,000
발명여행(1, 2)	각 5,500원
순간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특허발명 이야기	5,500원

판 매 처 : 한국발명진흥회 자료판매센터
전 화 : 557-1077/8 교환 225
전 송 : 554-1532
담 당 : 김 재 권